

존재는 관계이다

| 월인 |

무언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각하는 감각 기관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있다,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사물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일 뿐이지 실제 저 사물에 적용할 수는 없음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사물이 감각기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안이비설신의 여섯번째 대상인 마음의 상相이 존재하는 것 역시 그 상을 지각하는 마음의 의식적 기관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희노애락은 모두 마음 속 감각기관 역할을 하는 '나'의 기준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통찰해낼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네티 네티^{neti neti}

當知眞如自性, 非有相, 非無相, 非非有相, 非非無相, 非有無
당 지 진 여 자 성 비 유 상 비 무 상 비 비 유 상 비 비 무 상 비 유 무

俱相.

구 상

非一相, 非異相, 非非一相, 非非異相, 非一異俱相.

비 일 상 비 이 상 비 비 일 상 비 비 이 상 비 일 이 구 상

진여의 자성^{自性}은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요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며, 모양이 있지 않은 것도 아니요, 모양이 없지 않은 것도 아니며, 있고 없음을 함께 갖춘 모양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같은 모양도 아니요, 다른 모양도 아니며, 같은 모양이 아닌 것도 아니요, 다른 모양이 아닌 것도 아니고, 같고 다른 모양을 함께 갖춘 모양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논論]

비유상^{非有相}, 비무상^{非無相}, 비일상^{非一相}, 비이상^{非異相}... 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유무^{有無}와 일이^{一異}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무^{有無}는 ‘있다, 없다’에 대한 것이고, 일이^{一異}는 ‘같다(하나이다), 다르다’에 대한 것입니다.

마음의 본질 즉, 진여의 자성^{自性}은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요,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는 있고 없음을 떠나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양이 있지 않은 것도 아니요, 모양이 없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부정의 부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말하는 네티 네티^{neti neti}(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다)처럼 부정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재하는 상도 아니고(非有相), 존재하지 않는 상도 아니며(非無相), 있는 상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非非有

相), 없는 상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며(非非無相), 있고 없음을 함께 갖춘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非有無俱相). 이상이 있고 없음(有無)에 대해 부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의 상도 아니고(非一相), 다른 상도 아니며(非異相), 하나의 상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非非一相), 다른 상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며(非非異相), 같고 다름을 다 갖춘 상도 아니다(非一異俱相)라고 했습니다. 아주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단순합니다. 유무有無(있고 없음)와 일이一異(같고 다름)로써 대승기신론에서 단순하게 언급한 것을 원효 대사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인도에 여섯 개의 철학 유파가 있었는데 그중에 수론외도數論外道(상키야 학파), 승론외도勝論外道(바이세시카 학파), 무참외도無慙外道(니건타 학파) 등이 하나(一)와 하나가 아닌 다름(異), 그리고 그 둘을 다 허용하는 쌍허雙許에 대해 논합니다.

일一이라는 것은 같다(同)는 의미입니다. 상키야 학파는 일一을 주장하는 학파로서, 일체의 현상이 원인因과 결과果인데 이 인과因果가 불과 뜨거움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관계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는 둘이 아닌 하나라고 말합니다. 원인 속에 이미 결과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는 둘이 아닌 하나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중유과론因中有果論(원인 속에 결과가 있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결국 모든 현상과 본성들이 오직 하나의 본체인 생명의 힘, 즉 푸루샤Purusha로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상키야 학파의 핵심입니다. 그 오직 하나인 항존恒存하는 푸루샤는 모든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들 이전에 있는 가장 최초의 원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대 인

도에서는 이처럼 참자아, 진아眞我, 변함없이 죽지 않는 나인 아트만 Atman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이 같은 견해를 항존상恒存相, 즉 상견常見이라 하며 이것을 부정합니다. 불교가 부정하는 또 한 가지는 단멸상斷滅相, 즉 단견斷見인데 모든 것은 멀하여 사라지고 결국엔 아무것도 없다는 공꼴을 부정합니다.

원효, 청색의 비유를 비판하다

상키야 학파의 주장을 원효는 색깔을 가지고 반박합니다. 상키야 학파의 인중유과론의 논리로 보자면, ‘청색’이라는 결과는 그 원인인 ‘청색의 본성’에 내재된 것이고, 청색의 본성(色性)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근본인 ‘청색의 본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색’은 ‘청색의 본성’과 같고, 청색의 본성은 ‘청색의 본체’ 즉, 푸루샤와 같아서 이 세 가지가 모두 같고 오직 마지막 하나인 ‘푸루샤’는 항상 존재한다는 항존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원효는 이러한 청색의 비유를 비판하며, 상키야 학파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다른 색’의 본성도 그 본체와 같아서 결과적으로 ‘모든 색의 본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그렇다면 청색과 붉은 색이 하나인가 라며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대 과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소리는 모두 주파수인데 원효가 예를 든 ‘청색’은 ‘600~700THz(테라헤르츠)’의 주파수에 해당하며, ‘청색의 본성’이라는 것은 ‘색깔 전체의 스펙트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색깔 전체의 스펙트럼 즉,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은 빨간색 405THz부터 보라색 790THz까지입니다. 이 영역이 색깔의 영역이고, 색깔의 본성이라 함은 이 영역을 말합니다.

본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한계지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색깔의 영역에 들어가야 우리가 그것을 색깔로 인식하고, 소리의 영역에 들어가야 소리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소리의 영역이 소리의 본성 아니겠어요? 전체 주파수 영역, 예를 들어 $1\text{Hz}\sim 1,000\text{THz}$ 까지의 영역이 있다면 이 거대한 영역 중에서 일부가 빛(색깔)의 영역이고 일부가 소리의 영역인데, 소리의 본성은 소리의 영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색깔의 본성은 색깔의 영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청색은 색의 본성 중에서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지요. 옛날 원효 시대에는 주파수라는 개념을 몰랐을 텐데 이것을 대입해서 설명해 보면 잘 들어맞습니다. 청색 즉 $600\sim 700\text{THz}$ 의 색은 청색의 본성인 색깔 전체의 영역 $405\sim 790\text{THz}$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키야 학파의 논리인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600\sim 700\text{THz}$ 는 청색의 본성인 $405\sim 790\text{THz}$ 에 포함되지만, 그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색은 색깔의 본성인 스펙트럼의 일부일 뿐이지요.

청색의 본성과 본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키야 학파의 논리대로라면 청색의 본성은 청색의 본체와 같아야 합니다. 청색의 본체는 주파수 자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동수인 Hz라는 것 자체가 청색의 본체인데 이 주파수 자체의 영역에는 색깔뿐 아니라 소리도 포함됩니다. 즉 소리의 본체도 주파수인 것입니다. 소리의 가청 주파수는 $20\sim 20,000\text{Hz}$ 이고, 빛의 주파수는 $405\sim 790\text{THz}$ 입니다. 시각영역의 주파수는 소리에 비해 대단히 높고 빠른 고주파입니다(1THz 는 1조 Hz). 그래서 번개가 칠 때 번개의 빛이 먼저 눈에 도달한 다음에 천둥소리가 들리죠. 하늘에서는 빛과 소리가 동시에 발생했지만, 소리 주파수의 속도가 늦기 때문에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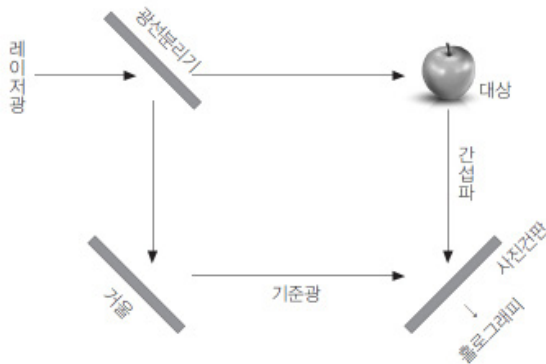
상의 우리에게는 나중에 들립니다. 주파수는 이러한 빛과 소리뿐만이 아닌 냄새, 맛, 촉감 등의 감각적 영역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405~790THz인 색의 본성은, 색의 본체인 전체 주파수의 일부에 해당하지만, 주파수 자체와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청색은 청색의 본성과 다르고, 청색의 본성은 또 청색의 본체 즉 주파수와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상키야 학파의 논리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같으니 이 논리가 오류임을 청색의 예를 들어 원효가 반박한 것입니다. 또한, 원효는 청색의 본성이 청색의 본체(주파수 자체, 즉 전체)와 같다면(若靑等色與色性一, 應如色性其體皆同), 그것은 소리의 본체도 마찬가지이므로(五樂等聲與聲性一, 應如聲性其體皆同) 색과 소리의 본체가 하나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귀로도 청색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應——根取一切境)¹⁾ 상키야 학파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그런 경우도 간간히 나타나기는 하지요. 손가락으로 책을 읽는 아이가 있고, 소리를 들으면 소리와 함께 빛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감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본성까지는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파수에 있어 색의 영역과 소리의 영역이 하나의 감각기관에 같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각기관과의 관계일 뿐입니다. 주파수 자체, 소리와 빛 등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영역, 각각의 색과 소리의 영역 자체를 모두 뭉뚱그려서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주파수라는 것만 보면 같습니다만 원효는 모든 본체가 같다면 일반인들도 귀로도 색깔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론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지 않는지요. 그러므로 ‘청색(600~700THz)’과 ‘색의 본성(405~790THz)’과

1) 《대승기신론 소·별기》(일지사 刊, 은정희 譯註), 115쪽

‘색의 본체(주파수 자체, 즉 전체)’는 같다고 할 수 없으며 하나(-)가 아니니, 오직 하나만 남고 다 같다는 상키야 학파의 주장은 참진리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이 원효가 일이—뿔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근경식根境識과 홀로그램

이상의 내용을 근根(감각 기관), 경境(감각 대상), 식識(그것을 아는 의식)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신호는 우리 내면에서 식識으로 가기 위해 모두 전기 신호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색이나 소리가 전기신호로 변환된 것을 색성色性(색의 본성) 또는 성성聲性(소리의 본성)이라고 해보죠. 전기신호로 변환된 신호들이 내부로 들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니, 나와 대상이라는 형태로 배열 돼서 홀로그램 방식으로 뇌에 기억된다는 것이 뇌신경학자인 칼 프리브람의 인식이론입니다.



간단하게 홀로그램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홀로그램으로 사과 형상을 만든다 하면, 하나의 빛을 두 개로 나누어 하나

는 사과 쪽으로 쏘아서 이 대상과 빛의 간섭현상에 의해 나타난 간섭 파를 사진건판에 찍고, 나머지 하나인 원래 빛은 그대로 사진건판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사과라는 대상에 의해서 변형된 파와 대상을 거치지 않은 원래 빛의 기준광파가 만나서 간섭현상을 일으켜 만들어지는 것이 홀로그램 원판이에요. 그 원판에 다시 원래의 레이저 빛을 쏘면 사과라는 가상의 홀로그램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홀로그램에는 신기한 점이 있어요. 이 홀로그램 원판의 일부를 쪼개어 작은 부분만 사용해서 빛을 쏘아도 이 사과 전체의 홀로그램 형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다만 좀 흐릿할 뿐이에요. 즉, 홀로그램 원판의 모든 조각에 전체 홀로그램 형상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부분 속에 전체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 조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형상은 선명해지고, 그 조각이 적으면 형상은 흐려집니다.

이것이 홀로그램의 특이한 측면인데 우리의 기억도 홀로그램 방식으로 뇌의 특정부위 뿐만이 아니라 뇌 전체에 기억됩니다. 그래서 뇌 일부를 잘라 없애도 뇌는 다시 기억해 낼 수 있습니다. 칼 프리브람의 스승인 라슈리는 쥐에게 적당한 먹이를 취하는 방법을 훈련시킨 후 펜 필드의 뇌 지도에 따라 그 훈련의 운동과 기억에 해당하는 뇌의 부위를 잘라내 손상을 주고 다시 훈련 활동을 시켰는데, 훈련과 관련된 특정 부위가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쥐는 금방 다시 그 운동능력을 기억해내었고, 반복해서 뇌의 해당 부위 일부를 잘라내도 쥐는 다시 그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칼 프리브람은 이러한 연구를 더 진행했고 뇌는 특정 부분에만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에 홀로그램 형식으로 저장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뇌 전체에 홀로그램 패턴을 기록해놓고, 자극이 들어오면 그것을 소재 삼아서

생명의 힘을 가져다 원판에 들이부으면 뇌의 어느 영역이라도 그 기억을 재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무시당했던 이 홀로그램식 기억이론이 최근에는 각광받고 있습니다. 외부 자극이 뇌에 전송되는 과정을, 옛날에는 대상의 모습이 망막에 비쳐서 그 아날로그적인 모습이 뇌의 전두엽이나 다른 측면으로 그대로 전송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외부 자극이 미세한 밀리볼트mV 수준의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나와 대상이라는 홀로그램 패턴으로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 그곳에 에너지가 쏘아지면서 재생되는 것이지요.

부산대학 뇌과학 연구자인 이정태 교수에 의하면 명상 상태에 들어가 나와 대상이 사라질 때 모든 뇌파가 통합되는 감마진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분리되어 있던 ‘나’의 일정 부분이 감마 진동으로 통합되고 공명하여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 하면, 삼매삼나 명상 상태에서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내려가면 ‘나와 대상이라는 분열’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관과 객관이 따로 존재하고 그중 주관에 더 강한 에너지 집적이 일어나 주체의 느낌을 띄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대상의 전기신호가 그것을 인식하는 ‘나’라는 느낌과 간섭현상을 일으켜 ‘나와 대상’과 ‘경험내용’이라는 홀로그램 패턴으로 저장됩니다.

식識의 측면에서 색의 본체와 소리의 본체가 같다는 것은 소리도 ‘나와 대상’이라는 패턴으로 저장되고, 색도 ‘나와 대상’이라는 패턴으로 저장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근경식根境識의 식識의 입장에서 본체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에서는 색과 소리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소리와 빛, 또는 색깔 등이 전적으로 같다고 말하는 것은 오류라고 원효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아까 말한 색깔과 소리의 영역을 가지고 따져보면 됩니다.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소리 중에서 ‘도’의 영역과 ‘솔’의 영역은 현상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소리의 본성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전체의 영역이에요. 모두가 소리를 나타내지요. 그러므로 ‘도’음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전체의 영역과 ‘같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일부분에 해당하므로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색의 영역은 색깔을 의미하는 주파수 영역 전체(405~790THz)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 일부분이므로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키야 학파는 청색과 청색의 본성, 청색의 본체 세 가지가 모두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원효대사는 똑같지는 않다고 하면서 만약 모두 같다면 청색의 본체인 주파수가 모두 청색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청색의 영역인 600~700THz는 색깔의 영역인 405~790THz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다음 이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측면인 주파수가 모두 색깔의 영역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죠. 소리의 영역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주파수는 색깔의 영역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같을 수는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키야 학파는 유성有性(존재의 특성)과 유有(존재)가 같다고 확대해석하여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주장처럼 일체의 개별현상인 유有와 그 일체의 공통적 특성인 유성有性이 같다면 모든 유有가 하나로 보여야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오직 주파수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청색이나 붉은색이나 모두 주파수이기에 분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파수를 나눠 놓은 스펙트럼의 붉은색 영역은 붉은색으로, 청색의 영역은 청색으로 서로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모든 현상이 하나로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

죠. 왜냐하면 그것을 다르게 보는 차원에서 우리의 감각기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주파수의 차원입니다. 주파수의 색깔영역인 빨주노초파남보 각각의 영역이 현상으로는 모두 다르지만, 이 모든 현상을 하나로 보는 주파수 자체라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상키야 학파의 ‘일체가 모두 같다’는 논리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파수 영역에 가 있다면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깨어있기의 감각 상태로 간 것과 같습니다. 삼매와 같은 감각 상태TM로 가면 마음이 텅 비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을 구분 못 하죠. 감지TM나 생각 상태일 때와는 엄밀하게 달라져서 구별이 안 됩니다. 상키야 학파의 세 가지가 다 같다고 말하는 것을 잘못 들으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 영역에서는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상은 모두 다양하게 다르지요. 그래서 온 우주는 하나, 푸루샤, 아트만, 브라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키야 학파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감각기관과 대상 사이의 ‘관계’입니다. 녹색을 녹색으로 보는 것은 사람의 눈에 한합니다. 개는 그렇지 않아요. 개는 적록 색맹이어서 주로 흰색, 검은색으로만 분별해서 봅니다. 구분하는 색깔의 영역이 사람과는 다르죠. 사람이 보는 530~580THz 주파수나 개가 보는 530~580THz는 같은 주파수인데도, 사람은 이것을 녹색으로 보고 개는 녹색으로 보지 못합니다. 상키야 학파의 말대로라면 똑같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개도 사람처럼 녹색으로 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함양 수련원에 있는 개 태풍이에게 붉은 공을 던지면 공이 허공에서 움직일 때는 알아채지만, 붉은 공이 푸른 잔디밭에 떨어져 구르다가 멈추면 못 찾아냅니다. 잔디밭의 색과 공의 색을 구별하지 못해요. 허공에 있으나 바닥에 멈춰있으나 공으로부터 오는 주파수는 여전

히 똑같은데 왜 개는 구별하지 못할까요? 개에게도 눈이 있어서 주파수를 감각하지만 사람과 개의 감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의 눈은 움직이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초록색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상인 공에게만 연관있는 것이 아니고 주체인 개와 사람의 감각기관과 깊은 관계가 있지요. 즉 존재한다는 것은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논리로 설명하면 잘 이해되는데 당시에는 의식적인 것으로만 설명했기에 대승기신론이 까다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진여가 공썬이 아니라는 것은 텅 비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여는 불공不空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공不空은 공썬이 아닌 무언가 있는 유有라는 것입니다. 불공不空이 아니라 했으니 ‘있는 것(有)도 아니고’, 공썬이 아니라 했으니 ‘없는 것(無)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진여는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썬과 불공不空 중에서 공썬이 아님을 해석하기 위해서 유무有無(있고 없음)와 일이一異(같고 다름)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상키야 학파는 일체 만법은 현상과 본성과 본체가 모두 같은 하나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주 전현상계는 하나의 본체인 생명의 힘 푸루샤Purusha로 통일된다는 것이죠. 푸르샤는 생명의 기氣인 프라나Prana와 같습니다. 이러한 상키야 학파의 주장에 대해 원효는 청색의 비유를 들어 현상과 본체가 같다면, 모든 현상이 같기에 눈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귀로 색을 볼 수 있는 등 같은 감각기관으로 감지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음을 지적하며 본체와 본성과 현상이 모두 똑같지는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래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 책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깨어있기 워크숍을 들은 오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승기신론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의식이 펼쳐지는 과정을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분석, 분해한 글인데 제목에 믿을 신뢰 자가 붙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파악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통해 알아채진 '깨달음'이라는 것마저도 표현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불교의 이 '혁명적인 선언'을 즐겨 읽어주시고요. 그러하기에 '깨달은 개인'이라는 것은 없으며, 이 모두는 우주적 불이不二의 의식 안에 펼쳐지는 '현상'임을...

저자 | 월인越因 이원규 | 미래사클럽 대표, 격월간 <지금여기> 발행인. '깨어있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찰력게임'을 보급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2016),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2009), 《관성을 넘여가기-감정의 대해부》(2013), 《죽음 속에도 봄이 넘쳐나네》(2008), 《주역-심층의식으로의 대항해》(2009)가 있다.

월인越因은 '인연을 넘여서'라는 뜻이다. 이 세상 만물과 우리 내면은 모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는 인연법칙의 소산이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주고 있다. 그 어느 것도 변함없는 제1원인인 것은 없다. 우스펜스키의 말대로 '미지未知가 미지를 정의하는' 현상일 뿐. 그것은 외부 물질세계와 내부 정신세계를 망라하여 모두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의존하는 '인연'의 '뿌리 없음'을 보면 이제 인연을 넘여서게 된다. 인연의 파도를 넘여선 그곳에 근원의 물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모양은 이런 저런 파도로 가득하지만 모양을 넘여선 그곳엔 오직 아무런 모양도 없는 '물'만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이 인연의 세계를 넘여서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월인越因이라 이름하였다. 그 인연의 세계를 넘여 있는 곳을 향하여...